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06년 8월 17일

제06-24호

대외통상전략을 활용한 일본의 가처분소득 성장전략

정성춘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장 (jung@kiep.go.kr, Tel; 3460-1202)

주요 내용

- ▣ 일본정부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장래의 '가처분소득' 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글로벌화의 적극적인 활용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는 노동인구, 총수요, 무역수지 흑자폭 등의 감소라는 경로를 통해 생산성 및 소득수지 저하를 초래함.
 - 일본정부는 특히 아시아에서 전개되어온 일본기업의 국제사업네트워크에 주목하면서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아시아에서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FTA라는 수단을 적극 활용하려 하고 있음.
 - 또한 대외자산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시아 지역으로의 투자전환을 제시하고 있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증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 등을 강조하고 있음.
- ▣ 일본의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첫째,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인 일본이 가처분소득의 저하를 우려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글로벌화의 적극적 활용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임.
 - 둘째, 소득수지 1천억 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 소득수지 흑자국인 일본조차도 소득수지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대내외 직접투자 확대, 대외자산 포트폴리오 재구성 등을 도모하고 있음. 국제수지구조가 불안정한 우리나라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일본기업들이 구축한 아시아 국제생산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호적인 한·일관계형성이 요구되고 있음.

1. 서론

-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글로벌화, 저출산·고령화와 투자 약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아시아의 급부상에 따른 경쟁력 약화라는 다양한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세계경제환경의 변화는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 우리나라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글로벌화는 세계시장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기회요인이면서 동시에 이에 대한 대응이 미진할 경우 오히려 외국기업에 국내시장 및 기업을 빼앗길 수 있는 위협요인이기도 함.
- 저출산·고령화는 속도의 차이는 있으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과제로 이 문제의 대응 여하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크게 좌우됨.
- 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협요인이면서도 아시아 시장 확대라는 기회를 제공해 줌.
- 이러한 환경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계층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한·미 FTA를 둘러싼 갈등심화임.
- 본 자료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참고자료로서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함.
- 일본의 경우에도 세계경제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음. 일본정부는 「글로벌화의 적극적 활용」이라는 기본전략하에서 상기의 제반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음.
- 본 자료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간한 『통상백서 2006』의 내용을 통해 세계경제환경변화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책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함.
- 본 자료는 특히 일본의 아시아 국제사업 네트워크와 지속적인 소득수지 성장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정부의 대외통상전략을 소개하고자 함.

2. 일본정부의 정책목표: '가처분소득'의 지속적 성장

가. 가처분소득의 정의

- 한 나라의 국민생활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가처분소득'의 크기임. 일본정부는 가처분소득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킨다는 관점에서 대외통상전략을 입안하고 있음.

- 가처분소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text{국가의 가처분소득} = \text{GDP} + \text{소득수지} + \text{경상이전수지}$$

- 가처분소득의 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내총생산(GDP) 수준임. 이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무역·서비스 수지)에 의해 결정됨.
 - 가처분소득은 소득수지에도 크게 영향을 받음. 소득수지는 내국인이 해외에 투자한 자산에서 얻는 소득(이자, 배당 등)에서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해 얻는 소득을 차감한 것임.
 - 이외에 대가가 수반되지 않는 순수한 경상이전수지도 가처분소득에 영향을 줌.
- ※ 참고: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는 경상수지의 한 구성요소임. 경상수지는 무역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로 구성됨.

나. 가처분소득 감소의 시나리오

- 일본정부가 가처분소득의 지속적 성장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한 것은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인하여 향후 일본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음. 특히 저출산·고령화라는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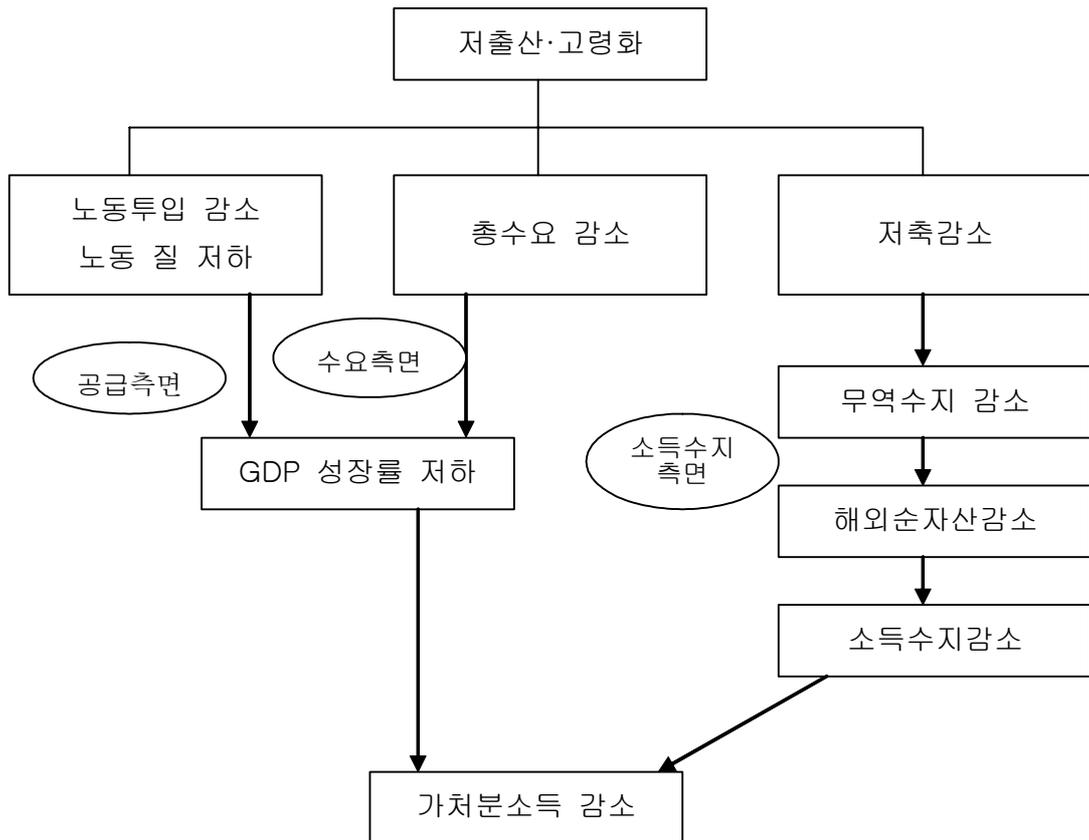
-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은 공급, 수요, 소득수지 측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일본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됨.

- 공급측면에서는 노동투입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의 질적 수준 저하, 이에 동반된 자본투

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일본의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일본의 총인구는 2005년부터 감소로 전환되었고 2020년대 중반까지는 노동투입량 감소를 노동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보완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이마저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수요측면에서는 총인구 감소에 따른 총수요 감소에 의해 GDP 성장률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소득수지 측면에서는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저축률 저하→저축투자 차액(경상수지 흑자) 감소→해외순자산 증가의 둔화→소득수지 감소」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음.

그림 1. 가처분소득 감소의 구조



자료: 필자 작성

다. 대외통상정책 차원에서의 대책

- 일본정부는 「글로벌화의 적극 활용」이라는 기본전략하에서 대외통상정책 차원에서 가치분소득의 증대를 도모하려 하고 있음.
 - 가치분소득 증대를 위한 수단은 ① GDP 성장률 증대, ② 소득수지 증대의 두 가지임. GDP 성장률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서는 ① 생산성 증대, ② 자본투입 증대, ③ 노동투입 증대가 있고 소득수지 증대를 위해서는 ① 해외투자 확대, ② 해외투자 수익률 증대라는 수단이 있음.
 - GDP 성장률 증대를 위해 ① 아시아 진출 확대를 통해 생산성 증대, ② 대내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자본투입 증대, ③ 해외우수인력 유치를 통한 노동투입 증대를 도모하고 있음.
 - 소득수지 증대를 위해 ① FTA/EPA를 통한 아시아 지역의 투자환경 개선, ② 대외자산의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통한 수익률 증대를 도모하고 있음.
- 다음에서는 이상에서 제시한 일본정부의 가치분소득 증대전략 중 ① 일본기업의 아시아 진출 확대전략과 ② 소득수지 확대전략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함.

3. 일본기업의 아시아 진출 확대에 의한 ‘가치분소득’ 증대

-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한 해외현지법인 수의 급격한 증가
 - 1981년에 약 2천여 개였던 일본 제조기업의 해외현지법인 수는 1985년 플라자 합의에 의한 급격한 엔고배경을 배경으로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4년에는 약 1만 3천여 개로 증가하였음.
 - 이러한 추이는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이 급속히 증가한 결과임.
 - 한편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액은 1990년 약 2조 5천억 엔대에서 2003년 약 7조 엔대로 약 3배 정도 증가하였음.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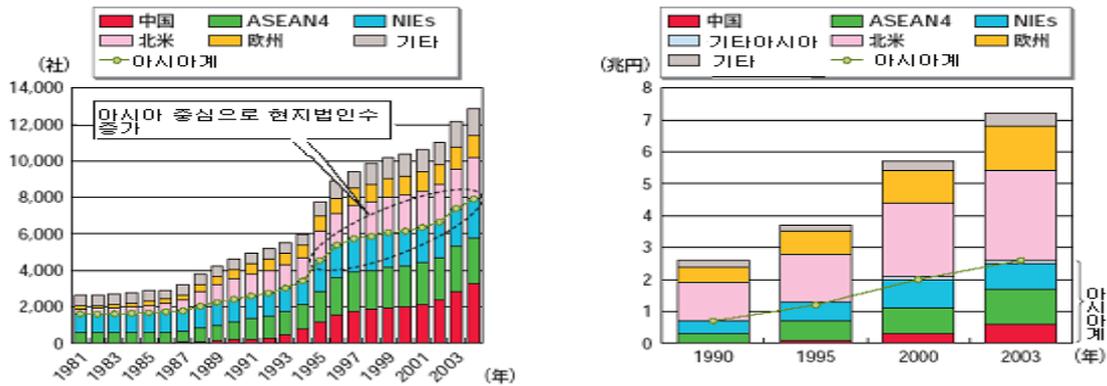
1) 이 수치는 설문조사결과에 근거한 것이며 미 회담기업을 포함하면 매출액 규모는 더욱 커짐에 유의.

- 이러한 매출액 증가 또한 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 및 ASEAN 4지역을 중심으로 한 매출증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그림 2. 일본 제조기업 해외현지법인의 규모(수) 및 매출액 추이

<해외현지법인 수 추이>

<해외현지법인 매출액 추이>



자료: 경제산업성(2006), 『통상백서』.

■ ‘공정분할형 진출’ 에서 ‘일관생산형 진출’ 로 전환

- 최근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경향을 보면, ‘공정을 분할하여 일본과 해외의 분업관계를 형성’ 하는 형태보다는 ‘공정을 분할하지 않고 해외에서 일관생산’ 하는 형태가 지배적임.

- 2006년에 실시된 설문조사²⁾결과에 의하면 현재 약 70% 정도의 일본기업들이 「일관생산형」, 30%가 「공정분할형」으로 진출하고 있고 향후에는 전자의 비율이 76%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특히 자동차산업에서의 해외 일관생산이 두드러짐.

■ 「일관생산형」 진출이 증가한 결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산업내 무역은 증가함.

- 일본기업의 「일관생산형」 해외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과 기타 동아시아 국가간의 수직적 분업관계는 점차 약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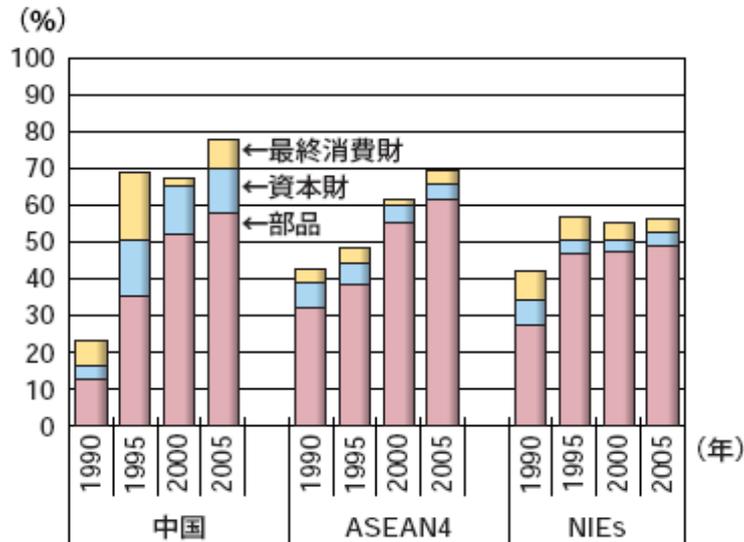
- 이는 일본의 부품소재가 일방적으로 수출되는 기존의 구조가 붕괴되면서 부품의 상호 조달

2) 재단법인 산업연구소(2006), 「동아시아의 투자·자금조달환경과 일본기업의 해외전개에 관한 조사연구」; 경제산업성(2006), 『통상백서』에서 재인용함.

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패턴, 즉 산업내 무역이 증가되고 있음을 의미함.

- 산업내 무역의 경우에도 비슷한 품질의 제품이 상호 교역되는 수평적 산업내 무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림 3. 일본과 동아시아 간 산업내 무역의 비율(전기기계)



자료: 경제산업성, 『통상백서』 2006년

■ 해외진출은 일본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일본의 경우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은 원래 생산성이 높은 기업임. 그러나 해외에 진출함으로써 더욱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아시아 생산네트워크 형성이 일본의 '가치분소득' 증대에 확실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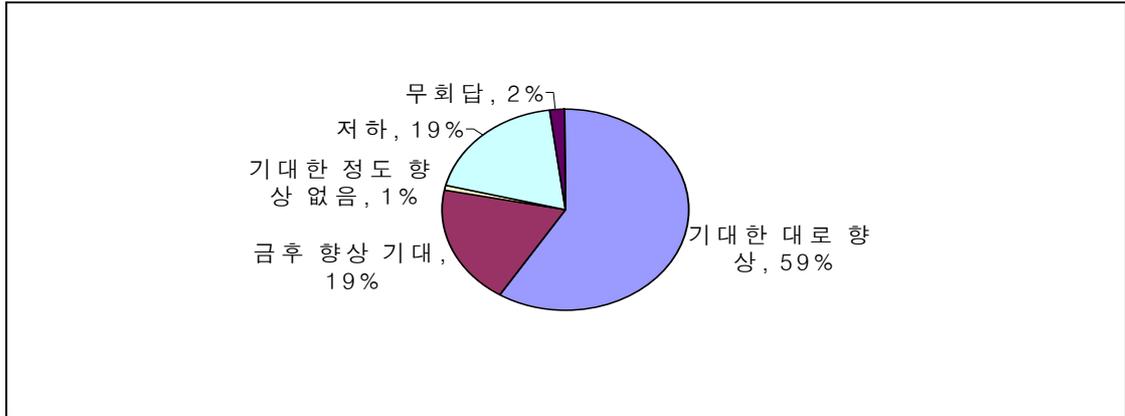
표 1. 해외진출기업과 비 진출기업의 성과 비교

	진출하지 않은 기업	진출한 기업
종업원 수	627	3,899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4.03	5.01
매출액(백만 엔)	40,799	222,235
1인당 매출액(천 엔)	58,104	59,102
1인당 부가가치액(천 엔)	11,533	11,636
연구개발비(백만 엔)	863	10,807

주: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평균치

자료: 경제산업성(2006), 『통상백서』.

그림 4. 해외진출 후 생산성 향상에 대한 실감



자료: 경제산업성(2006), 『통상백서』.

■ 국내는 여전히 중요한 제조거점으로서 건재

- 이처럼 일본은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최적의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개별 기업의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일본 거시경제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그러나 일본국내에는 일본기업 제조공정의 약 절반 정도가 남아 있고 향후 제조업에서의 신규투자 중 약 4분의 1 정도는 일본 국내에 남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해외진출에 따른 산업공동화 현상은 크게 우려되지 않고 있음.
- 그 배경에는 ① 강력한 제조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의 존재, ② 높은 기술수준, ③ 기능 전수의 필요성, ④ 기술·시장수요·고객 등에 관한 정보교환의 용이성 등 일본국내의 상대적 우위성이 존재함.

■ 아시아 지역을 집중공략하는 FTA 전략

- 일본은 「제조기업의 아시아 진출 확대→아시아 생산 네트워크 형성→일본기업의 생산성 향상→가처분소득 증대」라는 선순환구조를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음.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아시아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FTA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이 체결한 FTA는 멕시코를 제외하면 모두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체결한 FTA는 이미 발효되어 있고 현재 태국, 필리핀, ASEAN 등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인도, 호주 등과도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4. 소득수지 개선을 통한 ‘가처분소득’ 증대

- 한편 일본은 향후 무역·서비스수지흑자 감소를 소득수지 흑자 증대로 보완한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국제수지 발전단계설」(표 2 참고)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제4단계(미성숙한 채권국)에서 제5단계(성숙한 채권국)로 이행하는 단계에 있음.
- 일본의 경상수지 구조는 무역·서비스 수지 및 소득수지가 모두 흑자인 제4단계에 있음.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저축률 저하→저축·투자차액 감소→무역·서비스 수지 악화」가 나타나는 반면 「소득수지 흑자폭이 증대」하는 제5단계로 이행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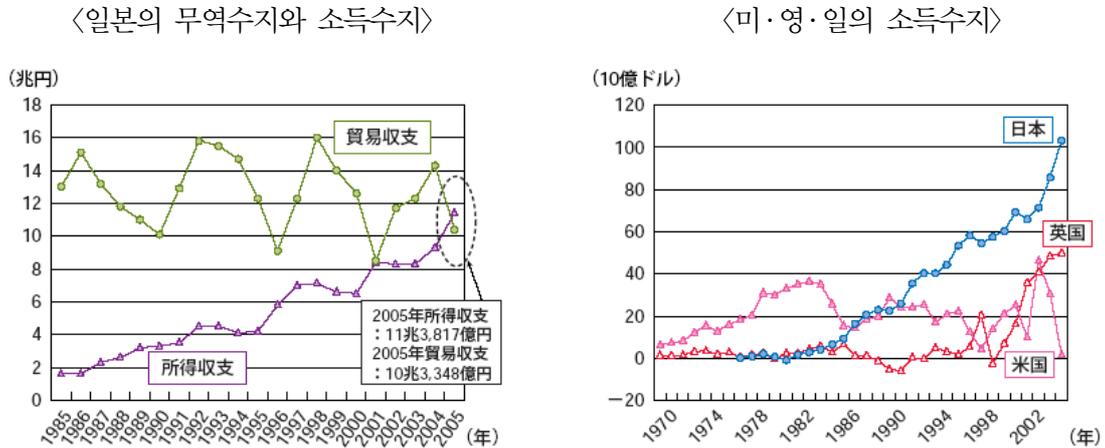
표 2. 경상수지 발전단계설

	I. 미성숙 채무국	II. 성숙 채무국	III. 채무 반환국	IV. 미성숙 채권국	V. 성숙 채권국	VI. 채권 소모국
경상수지	-	-	+	++	+	-
무역서비스수지	-	+	++	+	-	-
소득수지	-	-	-	+	++	+
자본수지	+	+	-	--	-	+
대외순자산	-	-	-	+	++	+

자료: 경제산업성(2006), 『통상백서』.

- 실제로 2005년 일본의 소득수지 흑자는 11조 3,817억 엔(전년대비 22.7% 증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무역수지 흑자 10조 3,348억 엔을 최초로 상회하는 등 경상수지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이처럼 일본의 소득수지가 급격히 확대된 이유로는 ① 해외금리 상승으로 인한 내외 금리격차 확대, ② 일본기업 해외 자회사의 성과 개선 등을 들 수 있음.

그림 5. 선진 각국의 소득수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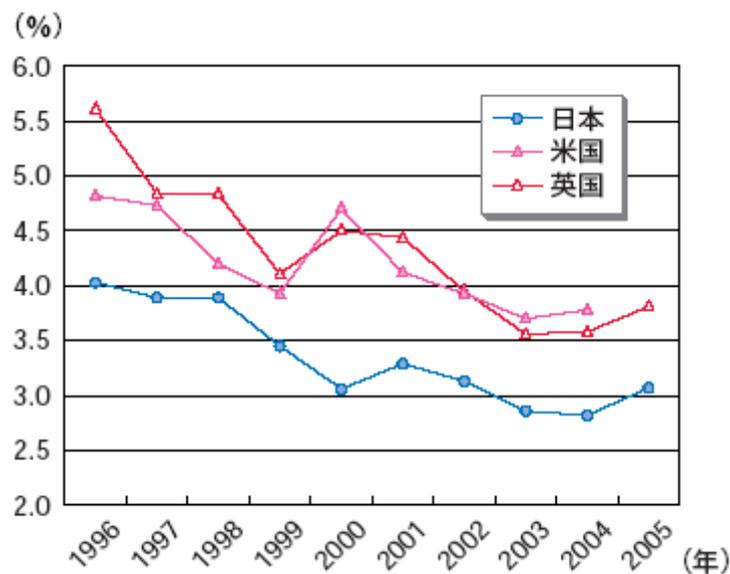
자료: 경제산업성(2006), 『통상백서』.

- 이처럼 일본의 소득수지 흑자규모는 세계 최대이지만 영국 및 미국과는 약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 일본의 소득수지구조를 영국 및 미국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일본은 「무역수지 흑자 누적→대외순자산 증가→소득수지흑자 확대」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영국 및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대외순자산 감소→소득수지흑자 유지」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둘째, 일본은 소득수지 흑자폭은 크나 소득수지 수입과 지출의 절대규모가 영국 및 미국에 비해 작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수입의 대GDP 비율(2005): 일본 3.1%, 영국 15.3%, 미국 3.75%
 - 지출의 대GDP 비율(2005): 일본 0.8%, 영국 13.0%, 미국 3.74%
 - 셋째, 일본의 해외투자수익률은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특징이 있음. 그 원인은 첫째, 증권투자에 편중(자산 종류별 포트폴리오 측면), 둘째, 선진국 편중(지역별 포트폴리오 측면), 셋째, 직접투자 수익률의 상대적 저조 등이 있음.
 - 영국과 미국의 대외자산 구성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직접투자의 비중(2004년 일본 9%, 영국 17%, 미국 33%)이 높은 반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증권투자(일본

48%, 영국 28%, 미국 34%)에 자산이 집중됨.

- 일본의 대외자산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 및 유럽(2005년, 직접투자는 미국지역에 39%, EU 지역에 24%, 증권투자는 각각 35%, 36%)에 집중되어 있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투자비율(2005년, 직접투자는 22%, 증권투자는 13%)은 상대적으로 낮음.
- 일본의 직접투자 수익률은 미국 및 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그 원인으로서 첫째, 일본기업은 신규설립형태이지만 영·미는 기업매수(M&A) 등의 형태로 진출, 둘째, 일본기업은 주로 제조업에 진출하지만 영·미는 주로 수익률이 높은 금융 등 서비스업 진출이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임.

그림 6. 미·일·영의 대외자산 수익률 비교



자료: 경제산업성(2006), 『통상백서』.

- 일본정부는 경상수지 흑자 확대를 전제로 한 소득수지 흑자의 유지기조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인식하면서 향후 소득수지 흑자 확대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첫째, 무역수지 흑자가 줄더라도 소득수지 흑자를 확대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을 강조함.
 - 향후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폭이 감소하더라도 소득수지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 대내투자의

적극적인 유치, 대외투자 확대 등 영·미형 소득수지 확보 유형으로의 전환을 강조함.

- 둘째, 투자수익률 증대를 도모함.
 - 대외자산 포트폴리오를 증권투자에서 직접투자로 전환함. 특히 아시아 지역으로의 직접투자 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위해 아시아 역내에서의 투자환경 개선, 제도적 조화를 도모함.
 - 대외자산 포트폴리오를 구미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전환함. 특히 아시아 채권시장을 육성하여 역내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함.
 - 직접투자 수익률을 향상시킴. 이를 위해 M&A 방식의 해외진출, 서비스업에의 진출 확대를 도모함.

5. 정책적 시사점

■ 글로벌화의 적극적 활용

-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 및 무역수지 악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대내외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우수인재를 활용하여 생산성 향상과 소득수지 흑자 증대를 도모하는 것임.
- 무역·서비스 수지와 소득수지가 각각 1천억 달러를 상회하는 경제대국 일본조차도 가치분소득의 지속적 성장을 목적으로 글로벌화를 적극 활용하려 하고 있음.
- 일본정부는 아시아 직접투자 확대를 통한 국제사업 네트워크 형성, 대외자산 수익률 증대를 위한 자산포트폴리오의 재구성 등을 중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FTA라는 수단을 활용해 아시아 각국에서의 투자환경 개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에 비해 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반면 거대경제권과의 경제통합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재 추진 중인 한·미 FTA 협상은 글로벌화의 적극적 활용이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소득수지 개선을 위한 대외자산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을 도모함.

- 우리나라는 현재 제4단계인 「미성숙 채권국」의 초기단계에 있으나 국제수지구조는 아직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이의 안정화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2006년 상반기 무역수지(127.9억 달러)는 전년동기(177.9억 달러)에 비해 흑자폭이 감소하였고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의 적자폭은 더욱 확대(서비스수지, -62.4억 달러 → -88.7억 달러, 소득수지, -18.4억 달러 → -21.2억 달러)되었음.
- 향후 고령화의 급진전과 이에 따른 저축률 저하, 잠재성장률 저하로 인한 무역수지 흑자폭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대외자산의 유효 활용, 즉 수익률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 모색이 매우 필요함. 앞에서 언급한 자산종류별, 지역별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이나 FTA 협정을 통한 직접투자수익률 향상을 위한 여건 조성 등은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만함.

■ 한·일관계는 ‘극일’ 보다는 ‘활용’의 관점이 중요함.

- 일본기업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국제사업 네트워크 형성은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본의 영향력을 ‘극복’한다는 관점보다 이를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한일관계를 재구축해야 함.
- 일본기업은 이미 아시아 지역에 국제사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이 네트워크는 점차 개방(open)되어가고 있음. 일본계 기업만의 폐쇄적 네트워크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기업이 전개하고 있는 다양한 공급체인(supply chain)에 접근하기 위한 우리 기업 및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
-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대립적 한·일관계를 조속히 청산하고 우호적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함.